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3  
|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시험 범위인 (가)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과 (나) 시나리오 「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두 작품 모두 '시 창작의 본질과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먼저 파악해야 해. (가)는 시 짓기의 괴로움과 진정성을, (나)는 일상에서 시를 발견하는 태도와 삶의 고통을 마주하는 자세를 보여 주지.



(가)에서 글쓴이가 시인, 광대, 풀벌레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시 창작이 얼마나 고된 정신적 노동인지 강조하기 위해서란다. 풀벌레는 천기에 따라 저절로 소리를 내고, 광대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지만, 시인은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고통을 겪어야 겨우 시 한 구를 완성한다고 했지.



아, 그래서 시인이 가장 힘들다고 한 거군요. 그런데 글쓴이가 허균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잡초'와 '벼'를 비유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허균이 유교적 본령인 '좋은 벼'를 뽑아버리고, 불교적 수식인 '잡초'를 키우는 주객전도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야. 즉, 시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기교나 외형적 꾸밈에 치중하는 것을 경계한 거란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3  
|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시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귀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가?(시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함.) 글을 꾸미고 웅얼거리서 잠시 사람들의 입을 벌여지게 만드는 것뿐이다. 나는 예전에 시인과 광대는 풀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 시인은 생각을 소리로 내고 광대는 입으로 소리를 낸다. 풀벌레는 배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날개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다리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가슴으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다.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재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힘든가 편한가로 말하자면 벌레는 몹시 편하고 광대가 그다음이며 시인이 가장 힘들다.((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대조적인 대상을 열거하여 시를 짓는 과정이 타 예술이나 자연 현상보다 고됨을 부각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벌레는 때가 되면 천기(天機)가 저절로 움직여 소리를 내니, 일부러 소리 내는 것이 아니다. 광대는 술잔을 들고 좌우에서 웃으며 하루 종일 복을 비니, 입술이 마르고 혀가 뻗뻗해져도 마음은 관여하지 않아 입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시인은 생각을 짜내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겨우 한 구를 완성한다. ]([ ]: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는 벌레나 입만 수고로운 광대와 달리, 시인은 온 감각과 감정을 소모하는 고된 창작 과정을 겪음을 대조하여 강조함.)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것이 삼분의 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매기면 시인은 마루에서 절하고 광대는 마당에 두며 벌레는 죽을 때까지 풀숲과 섬돌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다.(소리를 내는 존재들의 위치를 '마루-마당-풀숲'으로 구분하여, 가장 힘든 정신노동을 하는 시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현실의 위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함.) 그렇다면 사람은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편한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귀한 사람은 남을 부리고 천한 사람은 남에게 부림을 받는다.” 하였으니 사물은 어찌 하여 똑같지 않은 것인가.(힘든 시인은 귀하게 대접받고 편한 광대와 벌레는 천대받는 현실을 보며, 사물(대상) 간의 불평등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나는 늦게야 그러한 줄 깨닫고, 마침내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여 시에 대해 말하기를 기피했다. 그렇지만 좋은 시를 보면 문득 기뻐하였으니 마치 병이 나서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 생각이 나는 것 같았다.(시 짓기의 괴로움 때문에 시를 멀리하려 맹세했음에도, 좋은 시를 보면 기뻐하는 자신을 통해 시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애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지금 허균\*은 유, 불, 도 삼교(三敎)와 제자백가에 통달했는데, 불교의 말을 더욱 믿어 시를 지어 장식했다. 이것은 좋은 버를 뽑아 버리고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다.(허균이 유교적 본령(좋은 버) 대신 불교적 수식(잡초)에 치중하여 시를 짓는 태도가 주객이 전도된 것임을 비판함. 글쓴이가 청자(허균)에게 전하고자 하는 조언을 묻는 문제에서 '불교적 색채로 시를 장식하는 것은 본질을 해치는 것이니, 유학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깊이 있는 사유를 담아내야 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부지런한데도 도리어 광대나 벌레보다 못하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마음은 거북 등껍데기와 같아 속을 태우면 조짐이 바깥으로 나타나니, 이것은 마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읊는 것과 같다.”(거북점을 칠 때 불에 굽는 자극(내면의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듯, 시 또한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물임을 설명함.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내면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거북 등껍데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은 물과 같고 시는 얼음과 같다.(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다시 물이 되듯, 생각과 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순환하는 관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소재의 의미나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에서 '생각과 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순환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도로 물이 된다. 이것은 마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짓고, 시를 읊으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생각이 깊지 않으면 시가 좋지 않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시라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독자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시인의 마음이 맑아야 하고 그에 따른 깊은 사유가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함.)

나는 늙어서 시를 멀리하고 있다. 지금 마침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허 군을 만나자 나도 모르게 수레에서 내렸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시가 과연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인가?**((가)와 (나)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가)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의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고, (나)는 문답법을 통해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교육적 과정을 보여준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허 군: 허균을 가리킴.

- 이항복,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 (가)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수필, 서문(序文)
- 성격: 비평적, 교훈적, 비유적
- 주제: 시 창작의 어려움과 그에 담겨야 할 진정성(깊은 사유)의 가치
- 특징
  - 시인, 광대, 풀벌레를 비교하여 시 창작의 고뇌와 노고를 부각함.
  - '물'과 '얼음'의 비유를 통해 생각(내용)과 시(형식)의 불가분 관계를 설명함.
  - 허균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불교적 색채에 치중하는 시작(詩作) 태도를 경계하고 조언함.

#### 이해와 감상

이 글은 이항복이 허균의 문집에 부친 서문으로, 시 창작에 대한 글쓴이의 독창적인 견해가 드러나는 비평적 수필이다. 글쓴이는 시를 짓는 행위를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고된 노동으로 규정하며, 단순히 재주를 부리는 광대나 본능적인 벌레와 구별한다. 특히 허균에게 보내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허균이 불교에 심취하여 시를 장식하는 태도를 '잡초를 키우는 것'이라며 따끔하게 비판하는 대목에서 선배 문인으로서의 애정과 원칙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좋은 시는 기교가 아니라 '맑은 마음'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됨을 강조하며 시의 본질적 가치를 논하고 있다.

### (나) 「시」

#### 핵심 정리

- 갈래: 시나리오(각본)
- 성격: 성찰적, 서정적, 비극적
- 주제: 부조리하고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진정한 시 쓰기가 지니는 의미
- 특징
  - 시 강습 장면을 통해 시 창작의 본질(일상에서의 발견, 능동적 태도)을 교육적으로 전달함.

- O.S.(Off Sound) 기법과 빈 공간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인물의 부재와 시적 여운을 극대화함.
-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와 추악한 현실(손자의 범죄)을 대비시켜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묻고 있음.

### 전체 줄거리

딸이 말긴 중학생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미자는 꽃과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소녀 같은 감수성을 지닌 평범한 할머니이다. 우연히 문화원의 시 창작 강의를 수강하며 시를 쓰는 기쁨을 알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강물에 투신해 자살한 여중생의 죽음에 자신의 손자가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간병인 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건넨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미자는, 결국 시 창작 수업의 마지막 과제로 죽은 소녀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시 한 편을 완성해 남기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영화 「시」의 시나리오로, 평범한 할머니 '미자'가 시를 배우며 겪는 내면의 변화와 고통을 다루고 있다. 김 시인의 강의를 통해 '시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 배웠지만, 미자가 마주한 현실은 손자가 연루된 여중생의 자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이다. 미자는 피해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시 한 편을 완성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가 쓴 시만이 낭송되는 연출은, 시인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한다는 주제 의식을 묵직하게 전달한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3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시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시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귀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가? 글을 꾸미고 웅얼거리서 잠시 사람들의 입을 벌여지게 만드는 것뿐이다. 나는 예전에 시인과 광대는 풀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 시인은 생각을 소리로 내고 광대는 입으로 소리를 낸다. 풀벌레는 배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날개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다리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가슴으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다.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재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힘든가 편한가로 말하자면 벌레는 몹시 편하고 광대가 그다음이며 시인이 가장 힘들다. 벌레는 때가 되면 천기(天機)가 저절로 움직여 소리를 내니, 일부러 소리 내는 것이 아니다. 광대는 술잔을 들고 좌우에서 웃으며 하루 종일 복을 비니, 입술이 마르고 혀가 뻗뻗해져도 마음은 관여하지 않아 입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시인은 생각을 짜내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겨우 한 구를 완성한다.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것이 삼분의 이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매기면 시인은 마루에서 절하고 광대는 마당에 두며 벌레는 죽을 때까지 풀숲과 섬돌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편한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귀한 사람은 남을 부리고 천한 사람은 남에게 부림을 받는다.” 하였으니 사물은 어찌하여 똑같지 않은 것인가. 나는 늦게야 그러한 줄 깨닫고, 마침내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여 시에 대해 말하기를 기피했다. 그렇지만 좋은 시를 보면 문득 기뻐하였으니 마치 병이 나서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 생각이 나는 것 같았다.

지금 허균\*은 유, 불, 도 삼교(三敎)와 제자백가에 통달했는데, 불교의 말을 더욱 믿어 시를 지어 장

식했다. 이것은 좋은 버를 뽑아 버리고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힘들고 부지런한데도 도리어 광대나 벌레보다 못하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①마음은 거북 등껍데기와 같아 속을 태우면 조짐이 바깥으로 나타나니, 이것은 마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읊는 것과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은 물과 같고 시는 얼음과 같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도로 물이 된다. 이것은 마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짓고, 시를 읊으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생각이 깊지 않으면 시가 좋지 않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시라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나는 늙어서 시를 멀리하고 있다. 지금 마침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허균을 만나자 나도 모르게 수레에서 내렸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시가 과연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인가?

허균: 허균을 가리킴.

- 이항복,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나)

S#21. 강의실(낮/내부)

문화원 강의실에서 김 시인이 한창 강의를 하고 있다.

김 시인: 시를 쓴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그냥 걸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슴속에 시를 품고 있어요. 시를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 줘야 해요. 가슴속에 갇혀 있는 시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김 시인이 문득 말을 끊는다. 미자가 손을 들고 있다.

미자: 선생님, 시상은 언제 찾아와요?

김 시인: 시상이 언제 오냐고요?

미자: 예, 아무리 시상을 얻으려고 해도 도무지 오지 않아요. 언제 시상이 오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 시인: 시상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서 빌어야 돼. 사정을 해야 돼. 그래도 줄 동 말 동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함부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돼.

미자는 보일락 말락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못내 미진한 듯 묻는다.

미자: 어디로 찾아가요?

시인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약간 짜증이 나는 것을 참으려 한다.

김 시인: 그거……. 그거는……. 어디를 정해 놓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시상이 어디 나 여기 있소, 하고 문패를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분명한 거는 내 주변에 있다는 거야.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거기서 얻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설거지통 속에도 시가 있다고…….

시인의 말을 듣고 있는 미자의 얼굴.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표정이다.

#### S#92. 미자의 집(낮/내부)

미자의 아파트 안. 싱크대 위 좁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껴들어 오고 있을 뿐, 집 안은 비어 있다.

현관문 쪽에서 달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문이 열리고 미자의 딸이 들어온다.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인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미자를 부른다.

수옥: 엄마!

대답이 없다. 그녀는 안방과 욕이 방의 방문을 열어 본다. 집 안에는 미자는 보이지 않는다. 식탁에 앉는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 그러나 신호는 가지만, 전화는 받지 않는 듯하다.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미자의 부재가 주는 알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힌 것 같은 얼굴이다. 시를 읽는 양미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미자: (O.S.\*)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 S#93. 아파트 앞(낮/외부)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이는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카메라 틸트다운\* 하면, 미자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앉아 나무를 올려다보던 곳. 미자가 앉았던 자리에 '신 20'의 동네 할머니가 앉아서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다. 미자와 욕이 배드민턴을 치던 아파트 앞 작은 공터에는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하며 놀고 있다. 미자의 목소리 계속된다.

미자: (O.S.)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부치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 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 S#94. 버스 정류장(낮/외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그녀가 늘 버스를 타던 곳. 어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비어 있다. 버스가 한 대 와서 선다. 그러나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버스가 다시 출발한다.

미자: (O.S.)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 이창동, 「시」

O.S.: 오프 사운드(off sound). 영화에서 대사가 나오는데 화면에는 말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화면 밖에서 말이 나오는 것.

틸트다운(tilt down): 카메라를 수직 방향으로 밑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

### 1. (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시인과 광대, 풀벌레의 우열을 가리는 세태를 옹호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에 대한 글쓴이의 통념을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대상을 열거하여 시를 짓는 과정이 타 예술이나 자연 현상보다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시를 짓는 즐거움이 육체적 고통을 능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 시 창작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가)의 ‘물’과 ‘얼음’의 관계를 통해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는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예술이다.
- ② 생각과 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순환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 ③ 맑은 물이 얼음이 되듯,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시를 즐길 자격이 있다.
- ④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시는 독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교훈적 기능을 한다.
- ⑤ 물과 얼음의 물성이 다르듯, 내면의 생각과 표현된 시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다.

**3. (나)의 영상화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21: 김 시인이 ‘설거지통’을 언급할 때, 미자가 자신의 일상적 공간을 떠올리며 고민하는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준다.
- ② S#21: 김 시인이 강의하는 동안 미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에서, 다른 수강생들이 미자를 불편해하는 반응을 샷(Shot)에 담아 미자의 고립감을 심화한다.
- ③ S#92: 수옥이 텅 빈 집에서 전화를 걸 때, 신호음은 가지만 받지 않는 소리를 강조하여 미자의 부재가 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 ④ S#93: 미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자는 없지만 일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S#94: 텅 빈 버스 정류장의 풍경과 미자의 목소리(O.S.)를 겹치게 하여,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현실 공간에 여운을 남기도록 연출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며 진실을 포착하려는 존재이다. (가)의 글쓰이는 시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내면의 치열한 사유 과정 끝에 나오는 결과물임을 역설한다. (나)의 김 시인 역시 시상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두 작품 모두 창작 주체의 능동적이고 고통스러운 노력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예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① (가)에서 시인을 광대나 벌레보다 힘들다고 한 것은, 창작이 본능이나 기교가 아닌 치열한 정신적 노동임을 강조한 것이다.
- ② (가)에서 오장육부를 힘들게 하여 겨우 한 구를 완성한다는 것은, 시 창작에 수반되는 고통을 드러낸 것이다.
- ③ (나)에서 시상을 얻기 위해 사정을 하고 빌어야 한다는 김 시인의 말은,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간절한 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미자가 김 시인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어디로 찾아가요?’라고 묻는 것은, 창작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 ⑤ (가)의 ‘생각을 짜내어’ 짓는 행위와 (나)의 ‘돌아다니면서’ 찾는 행위는 모두 진정한 시를 얻기 위한 창작자의 수고로움을 나타낸다.

**5. (가)와 (나)에 나타난 ‘시’에 대한 관점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화려한 수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나)는 시가 일상의 언어와 구별되는 특별한 언어로 쓰여야 한다고 본다.
- ② (가)는 시를 짓는 일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고, (나)는 시가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 ③ (가)는 시가 깊은 생각과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

어야 한다고 보고, (나)는 시가 우리 주변의 일상적 삶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④ (가)는 시인이 시류에 영합하여 대중의 기호에 맞는 시를 써야 한다고 보고, (나)는 시인이 도덕적 책무를 버리고 순수한 미적 가치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는 시가 사물의 외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나)는 시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이라고 본다.

**고난도** 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의 글쓴이는 허균이 불교에 심취하여 시를 짓는 것을 두고 ㉠“좋은 벼를 뽑아 버리고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나)의 김 시인은 ㉡“진정한 아름다움. 그냥 걸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시가 추구해야 할 본질에 대해 역설한다. 두 발언은 모두 ‘진정한 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 ① ㉠은 허균이 유교적 본령인 ‘좋은 벼’를 버리고 불교적 수식인 ‘잡초’에 집중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 ② ㉡는 시가 단순히 대상을 미화하거나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면에 담긴 진실을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③ ㉠과 ㉡는 모두 시 창작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보다 기교나 외형적인 꾸밈에 치중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 ④ ㉠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미자가 일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시를 완성한 것은 ‘잡초’가 아닌 ‘좋은 벼’를 가꾸는 행위와 통한다.
- ⑤ ㉠은 시인의 사상적 배경이 시의 우열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는 시인의 도덕적 무결성이 시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짓는 것은 거북의 등껍데기를 태우듯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주술적 행위와 같다.
- ② 내면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거북 등껍데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③ 거북 등껍데기가 불에 타야 조짐이 나타나듯, 시인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 ④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견고한 거북 등껍데기 안에 숨겨진 것과 같아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보존된다.
- ⑤ 시를 읊는 것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시인은 예언자적 태도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8. (가)의 ‘잡초’에 함축된 의미를 고려하여 글쓴이가 ‘허균’에게 전하고자 하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교 경전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고,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자유롭게 융합하여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시를 지을 때는 화려한 수사나 기교를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어야 한다.
- ③ 불교적 색채로 시를 장식하는 것은 본질을 해치는 것이니, 유학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깊이 있는 사유를 담아내야 한다.
- ④ 잡초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작(詩作) 활동에 정진해야 한다.
- ⑤ 농부가 잡초를 뽑고 벼를 키우듯, 시를 쓸 때에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9. (나)의 S#93에 제시된 ‘아이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자가 잃어버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환기하며, 시적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 ② 어른들의 부도덕한 세계와 대비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한다.
- ③ 죽은 소녀가 겪었을 고통이나 미자의 비극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평온하게 지속되는 일상의 무심함을 부각한다.
- ④ 미자가 손자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을 회상하게 하며, 가족 해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조시킨다.
- 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자가 겪어야 했던 생활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사회적 무관심을 비판한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글쓰는 시인, 광대, 풀벌레를 비교하며 풀벌레는 저절로 소리를 내고 광대는 마음이 편하지만, 시인은 오장육부를 힘들게 하여 겨우 시를 짓는다고 대조하여 시 창작의 고됨을 부각하고 있다.

- ① 시인과 광대, 풀벌레를 비교하고 있으나, 편한 것을 천하게 여기고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세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뿐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첫 문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것일 뿐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구조는 아니다.
- ④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힘든 것과 편한 것의 귀천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지 시 짓는 즐거움이 고통을 능가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 ⑤ 경치를 먼저 묘사하고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방식은 이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이 없다.

### 2. 정답 ②

글쓰는 생각이 움직여 시가 되고 시를 읊으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을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는 이치에 비유하여 생각과 시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① 물과 얼음의 관계는 시의 형식적 유동성이 아니라 생각과 시의 생성 및 수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 ③ 마음이 맑아야 생각이 깊어질 수 있다고 했으나, 순수한 사람만이 시를 즐길 자격이 있다는 배타적 의미는 아니다.
- ④ 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했으나, 얼음이 녹는 것을 독자의 마음을 녹이는 교훈적 기능으로 볼 수는 없다.
- ⑤ 물과 얼음은 형태가 변할 뿐 본질은 연결되어 있다는 문맥이므로, 생각과 시가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3. 정답 ②

S#21에서 김 시인이 미자의 잦은 질문에 말문이 막

히거나 짜증을 참으려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다른 수강생들이 미자를 불편해하거나 이로 인해 미자가 고립감을 느끼는 장면은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 ① 미자는 김 시인의 강의를 들으며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표정을 짓고 있으므로, 일상 속 소재와 연결 짓는 표정 연출은 적절하다.
- ③ 수옥이 전화를 걸었으나 대답이 없고 미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 연결음만 들리는 연출은 부재의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미자가 시상을 떠올리던 자리에 동네 할머니가 앉아 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미자의 부재와 대비되는 일상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 ⑤ 미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오프 사운드 기법과 빈 공간의 결합은 시적 여운과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적절한 연출이다.

### 4. 정답 ④

미자가 김 시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시상을 얻는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는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므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시인은 저절로 소리 내는 벌레나 마음이 편한 광대와 달리 온 감각을 곤두세워야 하므로, 이는 창작이 정신적 노동임을 강조한 것이다.
- ② 오장육부를 힘들게 한다는 표현은 시 한 구절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③ 시상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빌어야 한다는 것은 예술가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 ⑤ 생각을 짜내는 것과 직접 몸을 움직여 돌아다니며 찾는 것은 모두 시 창작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 5. 정답 ③

(가)는 생각이 깊지 않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좋은 시가 나올 수 없다고 하였고, (나)는 시를 쓰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① (가)는 걸을 꾸미는 것을 비판하며 깊은 생각을

중시하고,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하므로 화려한 수식이나 특별한 언어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는 시인의 고됨을 강조할 뿐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나)는 시가 타인에게 전해지는 고백이나 편지의 형식을 띠므로 소통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류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나)는 미자가 쓴 시를 통해 현실의 비극과 마주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미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시가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고, (나)는 설거지통 같은 현실 속에 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실 외면이나 단순한 외형 묘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⑤

㉞는 허균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불교적 언어의 수식에 치중하는 것을 비판한 비유이지, 특정 사상(유교/불교) 자체의 우열을 가리거나 사상적 배경이 시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 ‘좋은 벼’는 허균이 갖춰야 할 본질적 가치나 유교적 도리를, ‘잡초’는 그가 심취한 불교적 수식이나 기교를 비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그냥 걸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너머에 있는 삶의 진실과 본질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㉞는 ‘잡초(수식)’를, ㉟는 ‘걸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경계하므로 두 발언 모두 외형적 꾸밈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④ 미자가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며 쓴 시는 꾸밈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담은 것이므로, 이는 본질을 중시하는 ㉞의 ‘좋은 벼’를 가꾸는 태도와 맥락이 달아 있다.

7. 정답 ②

글쓰는 마음을 거북 등껍데기에, 속을 태우는 것을 불에 굽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거북 등껍데기를 불에 구우면 조짐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각이 쌓이고 감정이 고조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 시가 된다는 ‘표현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① ㉞는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만, 시 창작을 인위적인 조작이나 주술적 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③ 시 창작의 고통을 비유한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㉞는 속을 태우면 조짐이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드러내지 않아야 가치가 보존된다는 설명은 글의 맥락과 반대된다.

⑤ 거북점을 치는 행위를 비유로 들었을 뿐, 시인이 예언자적 태도로 미래를 점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8. 정답 ③

글쓰는 허균이 불교의 말을 믿어 시를 장식하는 것을 ‘좋은 벼(유교적 본령)’를 뽑아 버리고 ‘잡초(불교적 수식)’를 키우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허균에게 불교적 수식에 치중하는 태도를 버리고 유학자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깊이 있는 시를 쓰라고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글쓰는 허균이 불교에 심취해 시를 장식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불교와 도교를 융합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② **[매력적인 오답]** 화려한 수사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④ ‘잡초’는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쓰였으므로, 이를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상(벼) 대신 비본질적인 것(잡초)에 치중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9. 정답 ③

S#93에서 미자가 시상을 떠올리던 공간에서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훌라후프를 하며 놀고 있다. 이는 미자의 고뇌나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과 대조를 이루며, 개인의 비극 앞에서도 무심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속성을 잔인할 만큼 담담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① 아이들의 모습은 현재의 풍경일 뿐, 미자의 과거 어린 시절을 환기하거나 직접적인 시적 영감을 주는 매개체로 묘사되지 않았다.

- ②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은 희망보다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공간에서도 일상이 지속된다는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④ 아이들의 모습은 손자에 대한 헌신이나 가족 해체의 안타까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⑤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미자의 경제적 생활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목민배포공서